

※ 본 칼럼은 격월로 연재됩니다.

고통, 분노, 저항 그리고 기억: 팽목항 바닷가와 시편 137편

◎ 전성민 (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 세계관 및 구약학 교수)

이 글은 2014년 4월 16일 이후 처음 쓰는 글이다. 페이스북을 통해 나의 글과 소식을 나누기를 즐겨했지만, 그 날 이후 나는 페이스북을 멈추었다. 노란 리본을 프로필 사진에 달고 올라오는 소식들 앞에 할 말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300여명의 목숨을 삼킨 팽목항 바다, 그 옆에 주저앉은 가족들의 울음 앞에 나의 일상은 소리를 낼 수 없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울었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시 137:1-2). 시편 137편도 물가에서 우는 울음으로 시작한다. 이 시편에서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의 울음이 시온의 노래를 대신한다. 바벨론 강변 또한, 팽목항의 바다 처럼 울음 소리 외에 다른 소리는 자리를 찾을 수 없었다. 평소에 수금으로 반주하며 불렀던 시온의 노래를 멈출 수 밖에 없던 곳이 바벨론의 강가였다.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기쁘게 찬양하던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고 여호와의 노래를 불렀던 사람들이 타향에 포로로 잡혀 왔을 때, 그들에게 울음 외에는 다른 소리가 있을 수 없었다. 그리고 주검이 된 자녀라도 다시 만나 보듬고 싶은 부모들이 주저앉은 진도 팽목항도 그랬다.

“우리가 ...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시 137:1). 바벨론 강가에 있던 포로들은 시온을 기억할 때 더 목이 메었다. 예전 예루살렘의 화려함을 기억할 때면 울음은 더 깊어졌다. 한 가족이 소박하지만 짝찬 행복을 누렸던 시절을 기억할 때면, 삼겹살을 좋아했다는 예언이를 기억할 때면, 아들에게 브랜드 옷을 사주지 못했던 미안함을 기억할 때면, 마지막으로 남겨준 동영상을 보며 수현이를 기억할 때면, 팽목항의 남겨진 가족들, 그리고 우리도 통분만이 목에 차올랐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시 137:3-4). 노래를 멈추어야 했던 것은 울음이 노래를 삼켰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포로된 땅에서 부르는 시온의 노래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찬양이 조롱이 되는 장소, 그곳이 바벨론 강가였고, 팽목항 바다였다. 애통하는 사람들과 진정 함께 한다면 우리도 노래를 멈추어야 했다. 무엇보다 “실교질”을 멈추어야 했다. 하나님의 백성을 황폐하게 만든 자들

앞에서 부르는 시온의 노래는, 그 내용이 아무리 정당하다 하더라도 오히려 여호와를 모독하는 것이 되었다. 금을 밟지 않고 송곳같이 옴의 고통을 설명했던 친구들의 정통 신학을 하나님은 옳지 않았다고 판정하셨다(욘 42:7). 그렇기에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면 우리에게 남은 것 역시 버드나무에 수금을 거는 것 뿐이었다. 그렇지 않은 평론가의 말은 이방 땅에서 부르는 여호와와 노래처럼 오히려 우리 신앙을 조롱거리고 만들고 말았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라도.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라도”(시 137:5-6). 그러나 말을 멈추는 것과 시온의 노래를 그치는 것이 하나님을 망각하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생생하게 기억하기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처사에 말문이 막힐 뿐이었다. 바벨론 강가의 포로들은 예루살렘을 가장 즐거워했지만 예루살렘을 노래할 수 없었다. 하지만 예루살렘을 잊을 수는 없었다. 포로의 땅에서 시온의 노래를 부를 수 없던 처절함도 잊을 수 없었다. 사람들은 어느새 이제는 “시온의 노래”를 다시 부를만하다고 재촉하기 시작한다.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라고 보채기 시작한다. 하지만 그냥 돌아갈 수 없다. 돌아간 일상에서도 기억해야만 한다. “혀가 입천장에 붙는다”는 것은 노래를 못하게 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숨이 막혀 죽는 모습을 묘사한 것이기도 하다. 목숨을 걸고 말할 만큼 이들은 예루살렘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했다. 하나님의 참된 통치를 잊을 수 없었다. 우리도 잊을 수 없다. 잊지 않겠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에 혈어버리라, 혈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혈어버리라 하였던 애돔 자손을 기억하소서”(시 137:7, 사역). 이제 바벨론 강가에서 울던 사람들이 여호와를 부르다. 그런데 그 말엔 분함이 서려 있다. 애돔은 유다 자손의 형제였지만 유다의 패망을 기뻐하며 재앙을 방관했다. 심지어 입을 크게 벌리고 웃었다. 그들은 바벨론과 한패였다(욘 1:10-12). 예루살렘을 잊지 않겠다던 사람들은 자신의 불행은 옆에서 방관하며 조롱의 막말들을

뱉었던 자들에 대해 하나님의 기억을 호출한다. 지난 4월부터 우리 땅에도 남은 가족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려는 자들을 육보이는 막말들이 있었다. 지금 우리도 하나님을 부른다. 여호와여, 그들의 말을 기억하소서.

“멸망할 딸 바벨론아 … 네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시 137:8-9). 여호와께 애도의 막말을 기억해 달라고 호소했던 바벨론 강가의 포로들은 이제 성경에서 가장 잔혹한 “축복”을 말한다. 자신들을 황폐하게 했던 바벨론의 어린아이들을 바위에 집어 던질 자를 축복한다. (여기 “복이 있으리라”라는 표현은 시편 1편에서 사용된 표현과 같다.) 이 구절은 그 잔혹함으로 인해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당혹케 한다.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생생하게 묘사한 것이라고 설명해보기도 하고(사 13:16, 14:21-22 참고), 성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말이라고 폄하하기도 한다.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이 자신들을 거부했던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불을 내려 멸망시킬까 물어보자 그들을 꾸짖으셨고(눅 9:53-55),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다(마 5:44). 그러면 이 시편의 잔혹한 축복은 예수님을 몰랐던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의 그저 “미개한” 소리란 말인가. 그렇다면 “저들도 네가 있는 바다에 애원하고 절규할 때까지 빠뜨려 버리고 싶다”는 애비의 심정 또한 자녀를 잃은 슬픔에 “깡패가 되어버린 미개인”의 심정이란 말인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고백 속에 사람의 생사 회복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고 순순히 받아들이는 것만이 예수님을 아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일까?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시 137:8). 성경의 가장 잔혹한 축복은 사실 정의를 갈망하는 외침이었다. 열왕기하 8장 12절에 하사엘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면서 행할 잔혹한 행동이 나온다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리라. 네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메치며 아이 뱀 부녀를 가르리라”(왕하 8:12; 호 10:14, 13:16; 나훬 3:10 참고). 이러한 구절들에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오며 이스라엘 부모들이 겪었을 끔찍한 일을 짐작할 수 있다. 그들의 어린아이들이 바위에 메어짐을 당했던 것이다. 시편 137편의 마지막 외침은 그렇게 자녀를 잃은 자들의 억울함을 갚아주는 정의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갈구하며 그것을 이루는 자에 대한 축복인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러한 잔혹한 축복이 권력자가 아니라 희생자의 입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그저 이렇거나 목놓아 울며 외치지 않으면 죽은 자녀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의 정의를 바라는 처절한 갈구요, 진상을 규명하고, 공정한 처벌을 하고, 책임을 지라는 호소다. 성경은 바벨론 강가에서 외쳤던 이런 호소를 묵살하지 않고 생생하게 전해준다.

사실 또 다른 시편에는 가난하고 궁핍하고 마음이 상한자를 해하려 했던 자를 향한 엄청난 저주가 나온다.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와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 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니이다”(시 109:8-16). 이 시편이 불편하다면 그것은 우리가 가난하고 궁핍하고 억울하게 마음이 상해보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가난하고 궁핍하고 억울하게 마음이 상했던 자들에게 이 시편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편에서 계심을 경험하는 위로의 노래일 것이다.



전선민 서울대학교에서 수학을(B.Sc.), 캐나다 리젯칼리지에서 성경언어와 구약학을(M.C.S., Th.M.), 영국 옥스포드 대학교에서 구약학(D.Phil.)에서 전공했다. 최근 역서로 <크리스토퍼 라이트, 성경의 핵심 주제들에 답하다>가 있으며 옥스포드대학교 출판부에서 연구서 *Ethics and Biblical Narrative*를 Oxford Theology and Religion Monographs 시리즈로 출판하였다. 현재 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 세계관 및 구약학 교수로 섬기며 기독교세계관과 성경 주해를 접목한 강의를 하고 있다.

삶에는 여러 종류의 고통이 찾아온다. 그중에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부당한 고통이다. 내가 잘못된 것이라면 그 벌을 달게 받으려만, 착하게만 살았든 것이 잘못된 사람들이 받는 고난은 견디기 힘들다. 이 글을 원래 “고통과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바라는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 쓰기 시작했다. 그러나 고통과 고난에 대한 질문에 우리는 관찰자나 평론가가 되어 답할 수 없다. J.I. 패커는 그의 책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길 옆에 발코니에 있는 사람과 길을 직접 걸어가는 사람의 차이를 설명한다. 세상의 악에 대해 발코니에 있는 사람은 이런 저런 논의를 하겠지만,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직접 경험하는 악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묻는다는 것이다. 고통과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바라는 것을 진실되게 말하려면, 고통과 고난 가운데 함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함께 울고, 함께 말을 잃어버리고, 함께 분노하고, 함께 부르짖을 때, 그래서야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사람들 사이에 사람으로 보내신 비밀의 빛을 조금이나마 볼 수 있을 것이다. 고통과 고난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함께 고통한다. 함께 분노한다. 그리고 정의를 구하며 함께 저항한다. 무고한 고통과 고난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며 말이다. 그리고 기억한다. 하나님의 통치를, 우는 자를 조롱하는 말을,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이집트 제국의 압제를 심판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팽목항 바닷가를 생각하며 시편 137편을 읽는다. 그리고 불의한 고통 속에 하나님이 세우신 정의를 다시금 갈망한다. “우리가 팽목항 바다 거기에 앉아서 단원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멸망할 딸…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네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